

무등경기장~옛 도청 4.5km 행진...“오월 광주정신 계승”

르포

45주년 5·18민중항쟁 민주기사의 날

“45년전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광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80년 광주를 지킨 택시 기사를 위해 올해도 차량 시위를 재현합니다.”

20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는 45년전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택시 기사들의 차량 시위를 재현하기 위한 택시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민주기사의 날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난 1997년부터 28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주최하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와 민주기사동지위원회가 주관했다.

70명의 택시 기사들은 무등경기장 앞에서 사전대회 이후 무등경기장~광주역~금남로 5가~옛 전남도청까지 4.5km 구간의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차량 시위 재현 행사에는 광주시민 200여명과 택시 45대, 일반 차량 25대 총 70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사전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월 영령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시상식, 대회사, 기념사, 추모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민주기사 상에는 민주택시 경기지역본부 조경태, 총북지역본부 김희철, 광주지역본부

포니·포터 택시 등 70여대 참여 민주주의 구호 외치며 각오 다져

안건일·김재경 조합원이 수상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주먹을 흔들며 ‘5·18 광주정신 계승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차량에 탑승했다.

광주 출정기를 부르며 조목색 스티라 택시와 파란색 포니 트럭이 맨 앞장을 섰고, 70여대의 차량이 그 뒤를 이어 비상등과 80년 당시 민주 기사들의 상징인 상향등을 켜고 광주 도심에 향해 출발했다.

택시 기사들은 차 안에서 광주 출정기를 따라 부르며 비장한 표정으로 운전했고, 행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과 함께 핸드폰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느라 여념이 없었다.

윤남식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택시와 버스로 시민들의 부상자 후송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민주 기사님들이 계셨기에 5·18 시위가 더욱 확산할 수 있었고 더 큰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분들의



20일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앞에서 열린 제45주년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노고가 5·18의 중요한 시작점이 됐음을 기억하고 역사 왜곡과 폄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기 민주기사동지위원회 전 위원장은 “80년 5월이 생생히 기억되는 날이다. 80년 5월 그 잔혹했던 계엄군과 참혹한 시내의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며 “45년이 지난 지금도 오월을 폄훼하고 가짜뉴스

를 생산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기사의 날은 당시 계엄군과 맞서 싸우고 차량으로 시민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이들을 기억하고자 준비한 행사”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을 만들어 민주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1980년 뜨거웠던 항쟁의 순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민 곁을 지킨 택시·버스 기사님들의 용기를 기억한다”며 “이 행진은 단순한 재연이 아닌 5월 정신이 오늘의 광장으로, 내일의 민주로 이어지는 외침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두 오월 정신을 실천으로 계승하자”고 강조했다. 글·사진=이수민 기자

“노태우 일가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해야”

광주지역 오월단체 성명

광주지역 오월단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5·18 민주묘지 도독 참배와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3단체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과 아들 노재현은 아무도 모르게 국립5·18민주묘지를 예고 없이 찾아 참배했다”며 “이들이 ‘광주 5·18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고 방명록에 적었지만 행보는 오히려 진정성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 학살의 원인을 ‘유언비어’로 돌린 노태우 회고록 수정에 대해서도 노씨 일가는 ‘개정판이 나오면 수정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며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밀스러운 행보가 노태우 미화를 위한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유혈 진압의 책임을 ‘유언비어’ 탓으로 돌리는 등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의 수정·삭제를 요구해왔으나 노재현 씨는 수차례 말뿐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말과 행동이 다른 노태우 일가의 도독 참배, 위선적 행태와 거짓 사과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노태우 일가는 회고록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투표하고 식당 10% 할인받으세요”... 북구, 투표 독려 이벤트

골목형상점가 120여곳 참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투표 독려 이벤트가 펼쳐진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6월 3일) 3일간 투표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소속 점포 이용 시 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할인 행사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구성된 총 120

여개의 점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점포 위치와 업종 등 관련 정보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직원 투표 참여 챌린지’도 추진된다.

이번 챌린지는 첨단산단경영자협의회와 본촌산단관리공단이사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투표 독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기업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시작된 챌린지는 총 2,500여개사 2만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창호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장

은 “이번 할인 행사는 주민들의 대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시작된 아이디어로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대표님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많은 주민께서 투표도 하고 할인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투표를 제고를 위해 솔선 수범해 이벤트를 기획하고 참여해주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이벤트가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셀리아의 특별한 케어!

영롱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피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약속

건강한 피부 | 빛나는 삶 | 특별한 케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문의 : 080-385-0080



CELLIA